

당신만의 애티튜드를 찾아라!

툼 디슨

콘퍼런스의 끝, 'Funky Tom vs Gentleman Tom'을 표현한 위트 있는 이미지를 뒤로하고 그가 약 40분 동안 건넌 값진 메시지에 보답이라도 하듯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월드 스타는 오히려 덤덤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다.

에디터 홍지은 글 유승주(디자인전문 기자) 포토그래퍼 이수연

지난 12월 14일 홈·테이블데코페어의 트렌드 콘퍼런스는 '세계적인 가구·조명 디자이너의 디자인 히스토리'를 주제로 디자이너 톼 디슨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폭넓은 영역에 대한 유연한 수용력과 진보된 기술을 도입하는 과감한 도전, '언더 워터 퍼니처 프로젝트 (Under Water Furniture Project)' 처럼 저 깊은 바닷속에서 의자를 생산해내는 파격적 시도, 자전거의 부품이나 타이어, 프라이팬과 같은 소재를 사용함에 주저하지 않는 당돌함과 동시에 친근함까지 속 깊은 잠재력을 열어 보여주었다. 일방적인 전달과 수용이 아닌 보다 인터랙티브한 교류를 그리고 서로의 디자인적 인스피레이션을 주고받기를 기대하며 톼 디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했다.

본인의 취향이 담긴 소리를 만들고 모터바이크를 직접 만지면 기술자 톼 디슨의 과거는 이미 디자이너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낸 것일까? 스피드를 즐기던 레이서이자 기타 연주자였던 당신의 경험이 현재의 디자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모터바이크를 수리하며 소재를 구조적으로 이어붙이는 용접을 통해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악기를 독학으로 깨우치고 나만의 음악을 제작 및 홍보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지금의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는 나의 음악을 알리는 과정처럼 내 디자인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고 알리는 프로세스를 말이다.

강연중 디자이너 고유의 개성과 애티튜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그것이 비록 완벽한 결과물이 아닐지라도, 혹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이미지일지라도, 빠르고 자유롭게 공유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볼 문제다.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신만의 독창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자이너 고유의 애티튜드는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나는 음악,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고유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아이덴티티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문화나 그들이 처한 환경이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박물관을 둘러보며 전통 의복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컬러, 한글의 형태에 특히 감명받았다. 아직 전 세계 많은 이와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오랜 전통과 최신 기술을 적절히 접목한 디자인이 코리아 디자인 파워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수공예적 가치에 하이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접목하는지 하는 것이 결국 화두가 되겠다.

과거 구글과 함께 EPS(Expanded Polystyrene) 소재의 '체어 그랩(Chair Grab)'을 활용한 이벤트를 펼치며 마케팅 노하우를 익히고 그 결과 또한 체감했다. 카펠리니와 같은 글로벌 제조사와의 협업으로 커머스를 배우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통찰력을 키웠다. 디자이너 톼 디슨의 상징인 브랜드 톼 디슨 경영자이기도 한 당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세상을 향한 나의 레이블 또는 존재감을 더욱 자유롭게 표출하기 위해 톼 디슨 브랜드를 설립했으며 디자이너로서 기능성과 심미성, 경영자로서 퀄리티 컨트롤을 비롯해 오너십,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나를 알리는 마케터이자 톼 디슨의 대표인 동시에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디자인의 강점은 바로 이처럼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